

1일 부산 BBS 개국

13개 시·군 가청권...광주 3월 1일로 연기

부산불교방송이 2월1일 개국, 본방송에 돌입했다. 부산불교방송은 부산·김해 시흥 5개시와 양산군을 8개 시·군 일원을 가청권으로 1일 새벽 5시30분 지역불자들에게 T.K.B 라는 일괄시스템으로 정규프로그램을 송출했다.

가청 주파수 FM89.9MHz, 3Kw 의 송신출력으로 지방네트워킹시대를 연 부산불교방송은 보도 일일 10분·주간 60분, 포교 일일 30분·주간 180분, 교양 일일 25분·주간 150분의 방송비율로 이 지역 청취자들에게 신형·정보 전달에 기여하게 된다.

우선 서울불교방송과 2원체제로 방송운영될 부산불교방송은 매일 2차례에 걸친 지역뉴스와 열린아침 열린정보(월~토 오전 8시30분) 각종 불교행사 안내, 교통·취업·출판정보등을 송출할 시민들에게 전하는 종합뉴스프로그램이다.

○인간의 삶(월~토 오후 4시10분) 동시대 국민연교수의 진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부산·경남에서 활동중인 사부대중에게서 신형·포교인력을 듣는 시간이다. 이를 계기로 부산경남불교의 활성화를 꾀하게 된다.

등을 방송했다. 지난달 15일 부산 KBS홀에서 3천여명의 불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된 개국축하쇼에 이어 8일에는 개국 축하리셉션을 부산 코도호텔에서 열어 지방국 개국의 환희를 자축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불교방송국은 행정·기술상의 과다한 업무량 폭주와 일본 NEC에 발주한 방송장비의 설치 지연관계로 개국을 3월1일로 연기했다.

부산 자체제작프로그램

○지방뉴스(월12시15분, 오후 7시10분): 1부 수도권 뉴스와 2부 지방뉴스의 2원방송으로 진행된다.

○열린아침 열린정보(월~토 오전 8시30분): 각종 불교행사 안내, 교통·취업·출판정보등을 송출할 시민들에게 전하는 종합뉴스프로그램.

○인간의 삶(월~토 오후 4시10분) 동시대 국민연교수의 진행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하고, 부산·경남에서 활동중인 사부대중에게서 신형·포교인력을 듣는 시간이다. 이를 계기로 부산경남불교의 활성화를 꾀하게 된다.

노인돌기 자선 바자회 연예인 자원봉사단

연예인 자원봉사단(단장 엄용수)은 지난달 24일부터 6일간 팔십 향교관에서 무의탁 노인돌기 자선바자회를 개최했다.

대한노인중앙회의 후원을 받아 열린 자선바자회에서는 설맞이 제수용품 및 광도특산물 먹거리와 의류, 생활용품이 전시 판매됐다.

연예인 자원봉사단은 이번 행사로 얻어진 수익금을 전액 무의탁 노인들에게 전달한다.

'일그러진 영웅' 흥행인 동국대 영연과 합격화제

영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열석대역으로 잘 알려진 흥행인이 동국대 연극영화과에 합격해 화제가 되고 있다.

또, 93년도 미스코리아 미허성수도 동국대에 합격했다. 이외에도 '김가 이가', '한지붕 세가족'의 김수정, '무용이네 집'의 김은정, '백랑시대'의 양세은은 복수지원 관계로 중앙대와 동국대에 동시에 합격해 아직은 동국대로의 입학이 불투명한 상태다.

불교방송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 지난달 28일부터 방송에 들어갔다.

○50분 교통정보(28일 오전 3시15분, 매시10분 간): 시·도경, 고속도로 불계트를 각각 연결, 민족대이동 예상되는 귀성길 상황을 안내한다.

○까지까지 설날은(30일 오전 8시20분): 연극·영화안내와 알뜰시장 정보를 비롯 설날 신종족도를 소개한다.

○우리명절, 우리놀이(31일 오전 8시20분): 윷놀이, 널뛰기 등 가족·친지가 함께하는 민속놀이를 소개, 한마당 콘잔치를 벌인다.

불교방송이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 지난달 28일부터 방송에 들어갔다.

○50분 교통정보(28일 오전 3시15분, 매시10분 간): 시·도경, 고속도로 불계트를 각각 연결, 민족대이동 예상되는 귀성길 상황을 안내한다.

○까지까지 설날은(30일 오전 8시20분): 연극·영화안내와 알뜰시장 정보를 비롯 설날 신종족도를 소개한다.

불교방송 설연휴 특집프로 안내

○고향에 띄우는 노래(31일 오후 12시10분): 인기가수들이 송출한 노래실력을 겨루고 설날에 얽힌 추억담을 듣는다.

○성방송! 민요·노래방(31일 오후 4시15분): 김성녀, 김중엽

씨의 사회로 청취자들의 애창 민요를 노래방 형식으로 노래 대결을 한다.

○변신쇼 라이브콘서트(31일 오후 4시20분): 지난 25일부터 동승종 라이브콘서트에서 열린 변신쇼의 콘서트를 실황방송한다.

○배추머리노래방(31일 오후 8시15분): 실황민요의 고향 그리는 마음을 김병조씨의 워트와 제치로 달래고 그들의 마음을 노래에 실는다.

설날 아침에 찾아간 대부도 쌍계사



대부도 쌍계사에서 설을 맞은 열네명의 고아들, 형제애를 나누며 함께 공부를 하고있다.

인 14명의 형제들은 법현스님의 아들 딸이 되어 가난하지만 '웃음'만은 잃지 않고 살고 있다. 스님은 벌써 15년째 이렇게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고 있다.

쌍계사 밥을 먹으면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제 살 곳을 찾아 떠난 아이들도 많지만 언제나 지금 사는 아이들이 스님에게는 정답이 될 수 밖에 없다. 10여명의 등록금을 한꺼번에 내기에는 너무나 어렵지는 절 살림, 그래서 스님은 전국을 다니다 학비마련 후자를 하느라 정신이 없다.

"대부도에는 1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젊은 쌍계사 뿐이요, 3백년 역사의 이 젊은 정가법회를 열 만큼의 신도도 없고 기도하러 오는 신도도 거의 없습니다. 남들은 여기서 고아 원안으로 알고 있기도 합니다. 아이들이 많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고아원은 아니라고 강조하는 스님은 "그래도 부처님의 가르



70년만의 참혹한 대지진을 겪은 일본 고베 시 시민들이 부처님에게서 기도를 받고 있다.

국보 반가사유상 무사

고베지진으로 광릉사등 16사찰 피해

지난 17일 발생한 일본 관서 지방 대지진으로 교토에 있는 16개 사찰을 비롯한 문화유적과 불교문화재가 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교토 광릉사에 안치되어 있는 성관음입상(중요문화재)이 1m 높이의 좌에서 떨어졌으며, 성덕대지6세상과 같이 모셔진 사자상의 왼손이 파손되는 등 3점의 불교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다. 일본 국보1호인 반가사유상은 다행히 피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동사(東寺)에서는 사찰의 기와가 무너져 내렸으며, 서본원사의 경우 경내의 석등이 여러 개 넘어졌다. 천황사는 요사채 벽에 균열이 생기기도 했다.

담장의 벽화가 붕괴되어 있는 법흥사는 불상 1점과 석등 2기가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으나 국보급 문화재의 피해는 없었다.

한편 고베에 있는 청량사에

서는 국보인 아이타어래상의 광배 일부가 떨어졌으며, 시호사의 5층석탑(국보)과 금당 의 벽에 균열이 가는 피해가 발생했다.

일본문화청의 문화재 피해 집계에 따르면(18일 현재) 국보 및 중요문화재가 33건, 불상 등 미술공예품 11건, 경원 등 사적 명승지 천연기념물 8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청은 또 피해문화재의 보수에 대해 문화재 자재를 손상시킬지도 모른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진피해 사찰 및 파손된 불교 문화재는 다음과 같다.

○역사(고베): 3층석탑, 문주단 *장원사(효교현): 대웅전 장신구 일부 *광릉사: 목조삼관음입상, 목조아이타어래입상, 성덕대지 사자상 *청량사: 아이타 협시보살상, 목조삼대제자입상, *묘법연(교토): 목조천수관음입상 *법계사(교토): 아이타 내 벽화 *법흥사: 목조어의수관음좌상 보관 *시호사: 5층석탑.

14형제 "엄마생각 더 나요"

법현스님, 15년째 고아 아들·딸 돌봐

설날, 집이 부러부러 오르는 딱딱한 그곳을 앞에 놓고 한창을 하더니 금방 '남남합합' 한 그곳을 똑딱똑딱치는 쌍계사(웅진군 대부도 032-886-2110)의 14형제들.

여섯살짜리 향아의 새까만 눈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이 될 어가는 영목이의 꿈같은 눈에서조차 설날의 기쁨은 이내 자취를 감추고 만다. 딱딱 한 곳을 먹는 것 외에 다른 놀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설날이 뭐 그리 대단하냐는 형아들의 애기에 꼬맹이들은 새조끼의 옷 련으로 달려가 버린다. 느닷없이 떠오르는 엄마, 아빠에 대

한 생각 때문인 것이다. 영목이와 동생 영진이 그리고 또 네명의 꼬마들은 한때 오대산 일경사에 살다가 4년전부터 이곳으로 왔다. 중학교에 들어가는 경관이는 대부도에서 태어났다.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경관이란 남쪽두고 영미는 '도망'쳐 버렸다. 그래서 주지 법현스님의 손을 잡고 울먹이며 이곳으로 들어 왔다. 향아와 오빠 동원이(국민학교 4학년)는 중남 흥성에서 흠뻑 지를 여고 동생 한명은 고모 집으로 보내고 둘만 이곳으로 왔다. 역시 법현스님의 차를 타고.

그런저런 인연의 끈들로 모

락이 큰 탓인지 굶지는 않지요. 다만 학비가 매년 조물리는데 학교에서는 대개 육성회비 정도만 면제해 줍니다"

쌍계사의 한달 생활비는 1백만원에 이른다. 절살림의 배듯 함도 허리가 아프지만 등록금을 내는 달이면 정말 부처님만 울려다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스님의 설명이다.

"울겨울 걱정은 성안의 교회 다니는 신도들이 와서 담겨 줘요" 법현스님은 설날 아침이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선물이 라도 한가지씩 못 사주는 처지가 못내 안타깝다며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다.

(대부도=임연태기자)

태고종 평창에 복지시설

6만평부지에 요양원등 건립키로

재단법인 한국불교태고종(이사장 이규범스님)은 지난달 23일 열린 이사회 및 평창위원회에서 강원도 평창의 임야 6만여평의 부지를 출연, 요양원등 사회복지시설 건립을 잠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장 이규범 스님을 비롯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94년도 예산결산 및 사업보고, 95년도 예산안 및 사업계획 수립, 재산증자출연문

제, 임원선출등의 안건들이 논의됐다.

평창의 부지에 건립하게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계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기존의 이사회에 상무이사와 상임이사제를 신설, 법인의 원활한 활동을 기약키로 하는 등 총 21건의 이사를 새로 선출했다.

분규사찰 주지회의 1월26일 태고종 새해들어 태고종과 조계종간의 사찰분규문제해결의 한방에 교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불연사, 안경사, 백련사, 성주암, 선암사, 불국사 등 태고종 분규 사찰의 주지회의가 지난달 26일 태고종 총무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미 지난달 17일 조계종과 1차 협상을 가진바 있는 태고종

은 이날 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분규해결을 위한 분규당사자들의 입장을 정리하고, 태고 조계 사찰분규문제해결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자체적 공감대 형성, 태고종과 분규사찰간의 내부적 조율을 논의했다.

조계종 임시 중앙총회 16-17일 위원회 구성 다뤄

조계종 제115회 임시중앙총회가 오는 16-17일 양일간 조계종 총무원 청사 1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의 안건은

관음종 중앙총회 올해 50여 사업 계획

관음종(총무원장 이홍파)은 지난달 20일 총무원 모각사에서 총회위원장 정법륜스님등 총회위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2차 정기 중앙총회를 열고 8월로 예정된 제6차 국제불교 학술대회와 제3회 국제 보살수 계식등 교육 교화 복지 건설분야에 걸쳐 모두 50여개의 사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13억 5천만원으로 확정했다.

해외 고승초청등 사업계획 발표

법화종 창종50돌 기념

지난해 창종 50주년을 기념 대한불교법화종(총무원장 김대호)이 교구별 수련교육, 교구일원 및 합동수련교육 등 중대 내실 다지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화종은 지난달 23일 올해 중정 하리법회를 시작으로

95년도 중대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법화종은 미얀마 고승 초청 국제 보살계 대법회, 4월 초과일 불축전야 대법회, 한강 연등제등의 다양한 행사와 사회사업의 중대적 추진등으로 중대총회와 중대회합에 전력을

불교운동가 국제연합 사회참여운동등 논의 태국서 연례회의

불교운동가국제연합(International Network of Engaged Buddhists 이하 INEB)의 제 7차 연례 회의가 2월 26일부터 3월 2일까지 태국 원사닛 아쉬람에서 개최된다.

한국불자로서는 불교환경연구회 유정길총장이 참가하며 이보다 앞서 열린 '진리의 공동체'의 연사로는 한국의 진철스님이 초대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지난 6년간의 INEB 활동 성과를 바탕으로 불자들의 사회운동 참여의 전망이 실현·이론면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질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향후 INEB가 지원할 방향에 대한 그룹별 토론, 성, 폭력·비폭력적 투쟁방법, 인권, 환경을 주제로 하는 워크

INEB은 사회문제에 관심있는 불자, 비불자들이 모여 1989년 조직된 이래 불교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현재 태국을 본부로, 미국, 인도, 영국 등 10개국 24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INEB은 사회문제에 관심있는 불자, 비불자들이 모여 1989년 조직된 이래 불교의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왔으며 현재 태국을 본부로, 미국, 인도, 영국 등 10개국 24개 단체가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다.

술병상표에 불상사용 '태' 정부 '불'에 항의

프랑스의 한 주류업체가 자사제품의 상표에 불상과 불교 사원을 불경스럽게 사용한 것과 관련, 후안리크피이 태국총리가 프랑스 주재 태국 대사관에 이에 대한 항의를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방콕포스트가 22일 보도, 후안총리는 "신성한 종교적 상징이 불경스럽게 취급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콕=AP)

불교성지순례

귀의삼보하옵고
지난 해 보내주신 여러 불자님들의 성원에 감사드리며
올해엔 한해에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인도·스리랑카 15일

출발: 2월 12일 · 동참금: 215만원
일정: 서울-델리-럭나우-발람푸르-롬비니-쿠시나가르-바이살리-파트나-나란다-라지기르-부다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오랑가바드(엘로라·아잔타)-봄베이-콜롬보-아누라다푸라-풀론나루와-덤불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싱가폴-서울

인도·네팔·태국 11일

출발: 3월 2일 · 동참금: 165만원
일정: 서울-방콕-델리-사르나트-부다가야-파트나-나란다-영위산-죽림정사-바이살리-쿠시나가르-카필라바스루-기원정사-사위성-롬비니-카트만두(보드트·스와이엄부트)-방콕(새벽사원 에메랄드사원)-서울

스리랑카 6일

출발: 2월 10, 24일 · 동참금: 108만원
일정: 서울-콜롬보-아누라다푸라-하바라나-풀론나루와-시그리야-하바라나-덤불라-아루비하르-캔디-콜롬보-서울

인도네시아 5일

출발: 2월 19일 · 동참금: 85만원
일정: 서울-덴파사-죽자카르타-자카르타-서울

대만 5일

출발: 2월 20일 · 동참금: 65만원
일정: 서울-타이페이-고웅-화롄-타이페이-서울

여행조건 · 특급 및 1급(인도성지지역은 현지최고 수준) 2인 1실 수련 · 전일정 식사제공(인도성지지역은 한식제공) · 최소 출발인원: 10인 · 전문 가이드 동행 · 여행자 보험



국외여행업 제604호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637-10
02) 544-1533 (대)